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정민하 울리오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 홀로 머물러라(Manete Soli)

1836년 아직 조선인 사제가 없던 당시에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세 분의 신학생은 마카오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1837년 최방제 신학생은 병으로 먼저 선종하셨고, 1842년에는 세 분을 가르치고 챙겨주었던 르그레즈와 신부님도 파리 본부 신학교 학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또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역시 조선으로 들어가려는 메스트르 신부님의 통역사로 선발되어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낯선 외국 땅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당시 편지글에서 신부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서 떠나고 또 마침내 저의 유일한 동료 안드레아(김대건)와도 떨어져 있는 저는 작은 방에 외톨이로 남아있습니다마는 하느님과 홀로 있기가 소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쓰라림을 하느님을 위해 참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위로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원의이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죽습니다.” (1842년 4월 26일, 마카오에서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낯선 외국 땅에서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최양업 신부님은 철저히 혼자가 된 순간에 하느님만이 남고, 그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별은 사랑하는 사람로부터 잊힌다는 두려움과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에서 오는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양업 신부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홀로 머무르고 있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을 방랑자라 일컫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 부른다고 합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느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최양업 신부님의 신앙을 되새기며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8월 4일(월) 가톨릭회관 3층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가 정민하 율리오 위원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정민하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예수님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놀라운 이야기는 자비의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을 것이다.”라며, “우리 교정사목도 바로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하느님의 빛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 봉사활동은 바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한 기적의 씨앗이며, 은총의 열매이다.”라며,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



8월 6일(수)~8일(금)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여름신앙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5,5)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8일(금) 파견 미사에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한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4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여름신앙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살레시오회 신부님과 수사님들, 그리고 봉사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 일일교장학교



8월 13일(수)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소년학교)에서 종교와 상관없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서로를 격려하고 소통하며 협력하여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단 하루,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순간 즐겁고 행복으로 가득 찬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여 힘든 수용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미 세라피나 / 고봉중고등학교 봉사자

코로나로 인해 소중한 일상들이 멈춰버리고 무의미하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 지인의 권유로 고봉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인식 때문인지 선뜻 바로 답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후 먼저 봉사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봉사자 교육을 받고 처음 아이들을 접했을 때는 바로 여름신앙학교!

코로나 이전 십여 년간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마음으로, 이질감 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자리에 대한 기대, 또 한편으로는 만났던 아이들과 다를 것이라는 색안경과 낯선 환경에서 오는 걱정들로 밤잠을 설치고 준비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고봉중고등학교 학생 작품>

생각보다 강렬하고 날이 서있는 아이들의 눈빛에 조금은 압도되었고, 그중 철벽을 쳐가며 경계하는 아이들과 그 또래의 장난기 가득한 말과 행동으로 다가오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마냥 놓을 수 없는 긴장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 활동으로 긴장감과 걱정은 사라지고 무사히 즐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신앙학교를 마치며 주말 활동으로 이어가 아이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성경 구절처럼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하

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아이들도 성장했지만, 저 역시 신앙 안에서 한 뼘 더 자란 것 같습니다.

TV 속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재미로만 보았지만, 다시 보면서 드라마 속 배우가 아닌 아이들 마음과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있는 아이는 인성교육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그 눈물을 보며 아이의 진심을 볼 수 있었고, 어른으로 더 보듬어 주지 못함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보며 점점 짙은 색안경은 아이들의 내면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의 돋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아이는 어떤 교육이든 진심으로 대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세상 근심, 분노를 다 가지고 있는 듯, 말 걸기도 무섭게 앉아있던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열고 온화한 표정과 장난기 있는 그 또래의 밝고 열정적인 아이로 변화하는 모습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보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교사회를 그만두며 잠시 멀어졌던 성당에도 다시 미사를 드리며, 만났던 아이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말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도 사회와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분노로 표출하는 아이들이 없기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봉사자분께 존경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 아사엘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前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아사엘은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계속 함께 해온 최측근 장군인 요압의 동생이면서, 또한 다윗의 외조카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이름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마냥, ‘뜰에 사는 영양처럼 달음박질’(2사무 2,18)이 빨랐다고 합니다.

아사엘은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돌리지 않고 아브네르의 뒤만 따라갔다. 아브네르가 뒤돌아보며, “네가 바로 아사엘이냐?”하고 물으니, 아사엘이 “그렇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브네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젊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 가라.” 그러나 아사엘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았다. 아브네르가 다시 아사엘에게 “내 뒤는 그만 쫓고 물러서라. 내가 너를 처 땅바닥에 쓰러지게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네 형 요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머리를 들겠느냐?”하고 말하였다. 그래도 아사엘은 물러서기를 마다하였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을 뚫고 나오자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2사무 2,19-23)

아사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자신이 가진 능력만 믿고서 앞뒤 살피지 않은, 자신의 혈기와 과욕, 만용으로 허무하게 죽은 것일까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 군대의 장수인 아브네르는 유다의 임금인 다윗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 보셋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웁니다(2사무 2,8-9). 아브네르는 내란을 일으킨 핵심 인물이고, 이 싸움은 그렇게 갈라진 이후 처음으로 일어난 전투, 내전이었습니다. 아사엘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능력인 달음박질을 가지고, 충실히 쫓습니다. 아브네르는 말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돌려 젊은이나 하나 잡고 그를 털어 가라. 오른쪽에 있건, 왼쪽에 있건, 젊은이 하나 자기 대신에 잡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과 함께 전투에 참가한, 그리고 자신의 명령을 수행했던 병사를 자신의 목숨 대신해서 잡고,

그를 털라니요. 자신은 자신의 목숨만 건지면 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던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 아브네르가 참다운 장수일 수 있을까요. 아브네르는 어쩌면 이 말을 아사엘에게 협상의 카드로 내민 것일 수 있겠네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명예나 권력을 주겠다. 아사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족의 이름을 대면서, 죽이겠다며 아브네르는 헐박합니다. 아사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는 죽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네르는 이렇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흘린 탓에 죽었다(2사무 3,27).” 또한 다윗의 용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1역대 11,26). 그의 이름 ‘하느님께서 만드신’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달리기 솜씨만이 아니라, 아사엘 자체를 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여러 유혹에 타협하거나 헐박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음에, 아사엘을 보시고, 내가 만드신 사람,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헐박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 하느님이 주신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느님의 소명, 사랑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 내 개인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타협하고 눈치를 보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옳은 것에 주저하면서 귀찮아하지는 않았는지, 나 하나쯤이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봅시다.

당신 소임을 충실히 행하시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주저없이 다가가시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을 추모합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은 말 그대로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민00 / 기쁨과희망은행 창업대출자

저는 5년 전부터 배달 대행 업무를 수행해 왔고 누구보다 더 현장 경험이 많고 잘 알기에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자신감이 충분하기에 어렵지 않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대행업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고 남녀 상관없이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되는 직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직종입니다. 누구나 땀흘려 열심히 하면 일한 만큼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직업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그렇듯 오토바이라는 사고 위험이 많이 있는 직업이기에, 자기 몸이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경험이 있기에 크게 준비 하기보단 조금씩 다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업무를 하며 늘리게 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막상 나오다 보니 자본금도 많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으며,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금은 걱정 없이 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배달업종은 부지런함이 1순위입니다. 남들이 쉴 때 일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가 맹 점주님들도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대표라고 각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가맹점과 지속해서 거래하려고 합니다.

배달 대행업은 기사님들이 재산입니다. 처음엔 아무도 없었지만 기존 친분이 있는 기사님들과 계속 소통하여 저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 배달량이 줄어 들었지만, 경기가 회복된다면 더욱 바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있을 공백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상시 기사님을 모집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더불어, 늘 하던 대로 성실하고 꾸준하게 움직이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 항상 생각합니다.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기사님들과 가맹점 모집은 힘들 것입니다. 진짜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에 비해 성장이 느리다거나 힘들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항상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쁨과희망은행 대출 심사에서 합격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좋은 선례로 남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든 이들에게 기쁨과희망은행은 말 그대로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님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관계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 서울대교구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선종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장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께서 8월 15일 오전 0시 28분에 선종하셨습니다. (1962-2025)

유경춘 주교님은 2014년 2월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후, 소외되고 아픈 이들 특히, 교정사목의 수용자, 출소자,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시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제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유경춘 주교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활동



2014년 4월 25일  
서울구치소 최고수(사형확정자) 부활 미사



2015년 4월 7일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부활 미사



2022년 4월 22일  
제22회 교정시설봉사사교육 파견 미사



2023년 6월 20일  
서울남부교도소 공장 견진 성사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10월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 행사알림

- 9월 1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9월 4일(목)~11월 13일(목) 2025년 제26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 센터
- 9월 4일(목)~5일(금), 8일(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3기 성폭력심리치료프로그램 기본과정
- 9월 5일(금) 서울북부보호관찰소 3차 보호자 특별교육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9월 8일(월)~10일(수)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남사
- 9월 8일(월), 10일(수)~12일(금), 15일(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6기 인성교육
- 9월 13일(토)~14일(일)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 모집 미사 / 아현동성당
- 9월 15일(월)~19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안양교도소 남사
- 9월 17일(수)~19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사제 연수 / 제주도
- 9월 20일(토)~21일(일)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봉사자 연수 / 대전 정하상교육관
- 9월 22일(월)~26일(금)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남부교도소 남사
- 9월 24일(수)~25일(목) 해밀 가족 야유회
- 9월 27일(토)~28일(일)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총회 / 대전 정하상 교육관



###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5/07/16~08/15)

2025년 7월~8월에는 이근순 로살리아, 홍성호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강수경 율리아, 남북희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 ※ 후원 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사업부 02)921-5094 / 교정사목 휴대전화 010-3732-5093 ♥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